

역사속에 사라진 기생충



소진탁

60년대만 하여도 한국의 기생충하면 의레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이 첫 서열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그것도 이젠 옛 추억으로 남아가고 있다. 특히 십이지장충 감염자는, 본인이 농촌지역에 온지 어언간 5년이 된 이래로 그동안 국민학교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적에서 회충, 편충은 한자리 숫자로 감소하였고 특히 십이지장충은 그 양성자가 한건도 없었으니 이젠 십이지장충이 근절되었다고 하여도 과히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으로 본다.

한국건강관리협회 1990년도 보고자료에 의하면 학생 검면 9,146,913명중 십이지장충 감염자는 15명(0.0002%)에 불과하였다.

십이지장충은 소장에 기생하면서 호흡하므로 숙주인 사람에게 빈혈을 일으키는 기생충이다. 이 벌레는 1838년 두비니(이태리인)가 인체 부검중 처음 발견하였기에 그 이름을 십이지장충 또는 두비니구충(鉤虫)이라 부르게 되었고 1902년 스타일박사는 형태가 거의 유사하고 빈혈을 일으키는 등 병원성도 비슷한 벌레를 미국에서 발견하고는 아메리카구충이라 명명하였는데 한국에는 두비니구충이 주종을 이루며 통념상 십이지장충하면 위 두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통칭한다.

인분으로 가꾼 채소밭에 유충상태로 자유 생활하다가 채소잎에 붙어있던 것이 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살을 뚫고 들어온다. 초기엔 폐장에 모여 기침, 가래 등을 유발하다가 2주 지나면 소장으로 옮겨 모여 성충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인분으로 가꾼 채소와 관련이 있다해서 옛부터 똥독, 채독(菜毒) 또는 풀독 등 여러가지 낱말로 표현하여 왔다.

이같은 술어도 다음 세대엔 백과사전을 뒤져야만 혹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십이지장충은 우리나라에서와는 달리 인접 국가에 있어서

기생충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조직적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한
북한의 십이지장충은 아직도 공중보건분야의 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일본을 빼고는 아직도 국민병(國民病)이라고 호칭될 만큼 보건분야의
현안 문제로 남아있다. 원래 이 기생충은 그 유충이 추운 풍토에서는
자유생활을 할 수 없으며 난자(卵子)도 15°C 이하에서는 발육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도 북한보다 남한에 많이 분포되어 왔다.

지금은 어느 상황인지 그 숫자적 자료가 없으나 북한에서 발간된 한
잡지(1966년)에 “장내 기생충증과의 투쟁문제를 가지고”라는 과제의
좌담회 기사가 있는데(자료 출처는 미국국회도서관) 그중 몇군데를
골라본다.

「라순영(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생충 전공하다가 월북한 사람)
- 그런데 집단검진에서 어떤 방법에 의하여 진단하는가 하는 것이 또한
문제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십이지장충은 ... 피내반응법과
시험관배양법을 배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경순(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생충학 강의·6·25사변중
월북)... 네 그렇습니다. 사실 회충은 한마리의 암컷이 하루에 20만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대변의 단순도말표본에 의해서 회충증은 쉽게 진단할
수 있지만 십이지장충은 배란수가 극히 적은 탓으로 단순도말법에
의해서 진단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내반응법에
양성부합률은 두비니십이지장충 유충항원의 경우에는 낮아서 81.3%이고
높은 경우에는 94.1%나 되기 때문에 집단검진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사회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두비니십이지장충과
아메리카십이지장충이 다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종감별에는
어떤 방법인 좋습니까...」

「라순영- 집단 구충에 사용되는 약제는... 우리나라에서 다량
생산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십이지장충의
집단구충에는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안킬로톨”과 “브롬나프톨”을 기본
약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로기순(기생충 연구사)- 황해남도에서는 헤노포디유와 괴싱아(?)를
써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몇몇 동남아시아지역 국가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십이지장충은 여전히 보건분야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위 대담내용을 보면 십이지장충 감염을 진단하는데 피내반응법, 배양법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옛 문헌에서나 볼 수 있는 구충제를 아직도 사용한다는 것 등 어딘지 폐쇄된 사회의 한 조그만 현상으로 밖에 볼 수 없으나 우리 같이 기생충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의 조직적 실천이 뒤 따르지 않는한 북한의 십이지장충은 아직도 공중보건분야의 과제로 남아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접국은 어떤가. 여기서 우리의 수준과 비슷한 일본을 빼고는 대부분 국가들이 아직도 높은 십이지장충 감염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湖北省)의 초중고생 1,387명중 십이지장충 21.2%, 회충 46.8%, 편충 58.3%의 감염율이 보고되었다.

(WHO/HEALTH/86.20)

물론 같은 나라일지라도 광시(廣西省)는 주민의 33.3%가 십이지장충 양성자인가 하면 북만주 黑龍江에는 회충 20%, 간디스토마 16%, 십이지장충 1% 이하로 지역 기후에 따라 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1990년도 자료)

정치적인 혼란으로 기생충관리사업에 손을 댈 여유가 없었던 캄푸치아에는 2세 미만 아동의 8.9%가, 18세 이상은 65.2%가 십이지장충 양성자로 보고되어 있다(1985년도).

여타 동남아시아지역도 정도 차이는 있으나 십이지장충 문제는 여전히 보건분야에 있어서의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다. 그 나라에도 기생충학자들이 있고 정부차원에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많은 동남아국가들이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 기생충예방기구에 가입하여 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아시아국가들의 기생충예방사업을 발족한 것이 연대적으로 볼 때 우리의 1960년대와 비슷하였는데도 한국만이 유독 십이지장충 근절사업에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과 분뇨의 비료사용 기피, 화학비료 사용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7]

〈필자=원광의대 교수〉